주간 증시 브리핑

2026.7.06(월)

유진투자증권
리서치센터

Executive Summary

- **[증시요약]** 6월 중순 이후 국내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연상시킴. 지난 주 코스피는 급락 (7/2일 -7.9%) 후 급반등하며 8천선을 회복함 (8,088p, 주간 -323p, -3.8%). 코스닥은 3주 만에 반등함 (868p, 주간 +2%). 달러원은 7/2일 1,556원까지 상승했으나, 美 6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고(+5.7만명) 1,520~30원대로 하락함 (7/3일 하루 -30원).

- **[해외증시]** 美 증시는 메타가 남는 컴퓨팅 자원을 임대할 것이라는 소식이 AI 버블 논란을 자극했으나, 전통 경기민감주들의 선전으로 상승함. (주간 S&P500 +1.8%, 나스닥 +2.1%). 닛케이는 주후반 Tech주 반등에 힘입어 상승 반전 (주간 +0.6%). 中 증시는 모처럼 홍콩증시가 반등하며 상승 마감 (주간 상해 +0.4%, 홍콩 +3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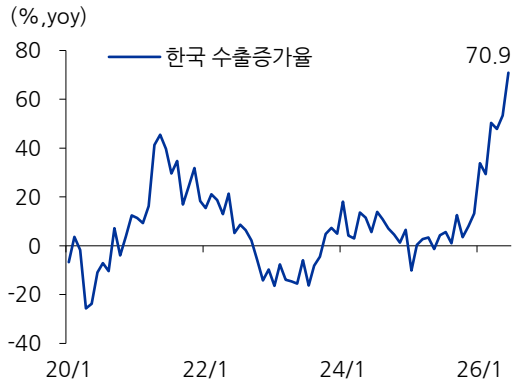
- **[시장전망]** 코스피는 6/19일 장중 고점 9,385pt 이후 7/3일 장중 저점 7,378pt까지 -21% 하락함. 코스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5월말 수준을 하회한 것임. 레버리지 ETF 자금 유입에 따른 수급 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. 실적 시즌에 진입할수록 주식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함.

- **[주요일정]**
  ① 美 6월 ISM 서비스업 PMI (7/6일)
  ② 中 6월 소비자/생산자물가지수(7/9일)
  ③ 美 FOMC 의사록 공개 (7/8일)
  ④ NATO 정상회의(7/7~8일)
  ⑤ 韓 달러원 24시간 거래 시작 (7/6일)
  ⑥ 韓 삼성전자 2Q 잠정실적 발표(7/7일)
  ⑦ 韓 SK하이닉스 ADR 美 상장 예정 (7/10일)

구분		7/3	1W	1M
KOSPI	↓	8,088	-3.8%	-8.1%
S&P500	↑	7,483	1.8%	-0.9%
DOW	↑	52,900	2.0%	4.4%
닛케이225	↑	69,744	0.6%	2.0%
상해종합	↑	4,044	0.4%	-1.0%
원/달러(원)	↓	1,525.6	-0.4%	0.6%
엔/달러(엔)	↓	161.0	-0.3%	0.8%
국고채3년(%)	↑	3.748	3.722	3.773
국고채10년(%)	↑	4.197	4.117	4.135
미국채10년(%)	↑	4.487	4.372	4.497
WTI(달러/배럴)	↓	68.7	-0.8%	-28.5%
한5-yrCDS(bp)	↓	22.5	-0.29	-0.6

CHART of the week

韓 수출증가율 추이



1 美 6월 신규 일자리 수 +5.7만명 증가(7/2일)

고용 일시 둔화,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 후퇴

- 美 6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+5.7만명 증가하며 시장예상(+11.5만)의 절반수준에 그침.
- 업종별로는 교육 및 보건(+6.9만), 전문 비즈니스(+3.6만)가 증가. 반면 호텔·레저 고용은 -6.1만명 감소하며 월드컵 특수 기대와 상반됨.
- 과거 수치도 하향 조정됨. 4월 3.1만, 5월 4.3만이 감소하며 두 달 합계 7.4만 명이 하향 조정됨.
- 실업률은 4.2%로 전월(4.3%) 대비 하락하였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이 61.5%로 0.3%p 급락한 효과.
- 고용 지표 부진으로 금리 인상 우려가 후퇴함. 7월 FOMC회의에서 연준은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짐.

2 韓 6월 수출 +70.9%yoy 증가 (7/1일)

역대급 상반기 수출 호조, 수출 증가 추세 유효

- 韓 6월 수출은 1,022억 달러로 +70.9%yoy 증가. 사상 첫 월간 1,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됨.
- 동력은 단연 반도체임.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에 반도체는 +199%yoy 증가한 448억 달러를 기록.
-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도 574억 달러로 +28%yoy 증가함. 20대 주력 품목 중 18개가 증가함.
- 26년 상반기 수출은 4,967억 달러(+48.4%yoy), 무역흑자 1,383억 달러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함.
- 하반기 관세 및 환율 변수가 남아있지만 AI 향 반도체·IT 수요로 당분간 수출 호조의 모멘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.

3 ECB 중앙은행 포럼 (6/29~7/1일)

포워드 가이던스 후퇴, 경제지표 민감도 상승

-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ECB 포럼에서 워시 연준 의장은 신중한 기조를 유지함.
- 워시 의장은 최근 4주간 기대 인플레 리스크가 낮아졌다고 평가하면서,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발언함.
- 또한 연준의 독립성과,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차 강조함.
- ECB 라가르드 총재 역시 복잡한 포워드 가이던스 없이 매번 지표 기반으로 결정하겠다고 발언함.
- 주요국 중앙은행의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입장이 변함. 경제 지표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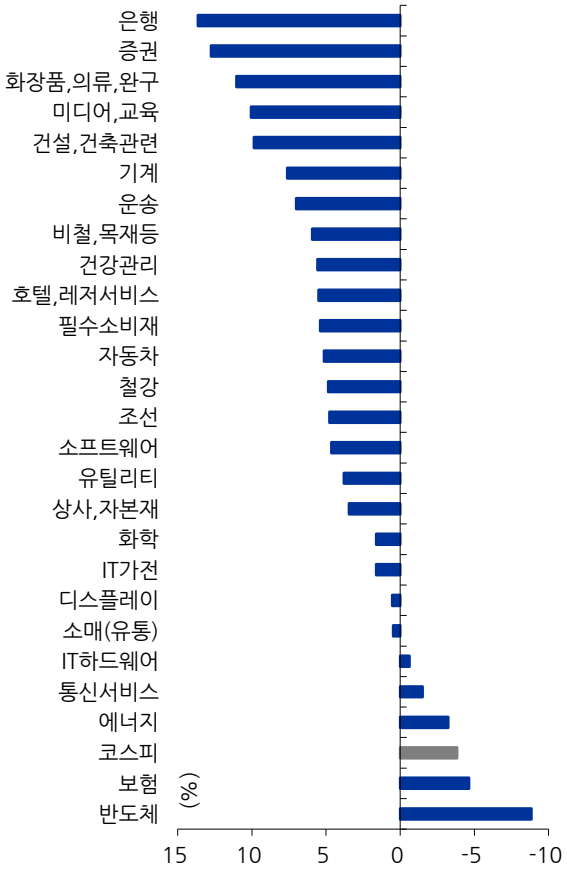
4 韓 채권시장 동향(6/29~7/3)

환율과 주식에 연동, 베어 스티프닝

- 국고채 3년물 금리 3.745%(+2.6bp), 10년물 금리 4.197%(+8bp)마감.
- 원/달러 환율이 1,560원에 육박하는 등 급등세 이어지며 금리 상승 견인. 금요일 정부 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세로 환율 급락하며 인상 우려 일부 상쇄.
- 주식시장 폭락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는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추경 우려와 변동성에 따른 장기물 수요 감소로 커브 스티프닝.

주요 이슈 / 경제 지표 전망 / 주요 일정

주간 업종별 수익률(7/3 기준)



주요 경제지표 예상(7/6~7/10)

美 6월 FOMC의사록(7/8일)→ 금리 인상 논의 여부 주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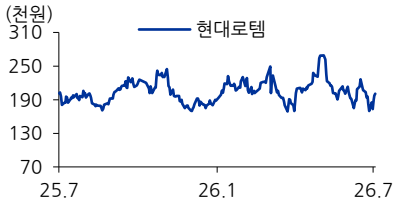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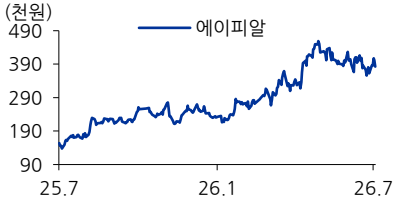
- 美 6월 FOMC에서 워시 의장은 짧은 성명문을 발표. 포워드 가이던스를 배제하며 시장과의 소통 축소를 예고함
- 워시 의장은 점도표 또한 제출하지 않았으며, 기자회견은 소통·대차대조표·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등 5개 태스크포스 구성 소개가 주된 내용이었음
- 성명문과 기자회견의 정보가 줄어든 상황에서 FOMC 의사록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
- 의사록이 정책 신호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핵심 채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
- FOMC 회의 참가자 18명 중 9명이 연내 인상을 전망한 가운데, 에너지 충격의 일회성에 대한 위원간 논쟁 강도와 7월 인상의 논의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

韓 달러-원 24시간 거래 시행(7/6일) → NDF 투기 억제 기대

- 7/6일부터 외환시장 달러-원 거래가 주 5일 24시간 체제로 전환됨(기존 ~익일 새벽 2시까지 운영 → 월~토 오전 6시 연속 운영으로 변경)
- 핵심 장점은 NDF 투기성 거래 시간대를 실수요 중심 정규장으로 편입하는 것. NDF 역외 거래의 Wag the Dog (주객전도)현상 완화가 기대됨
- 신현송 한은 총재는 4/15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직접 지적하며 개선 의지 표명한 바 있음
- 이밖에 글로벌 이벤트를 가격에 즉시 반영. 수출입기업 및 개인의 실시간 환리스크 관리에 장점이 있음
- 또한 원화의 국제화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단계적 도약을 의미함
- 다만 야간 외환 거래량이 주간의 20%에도 미치지 못해 환율 변동성 관리의 어려움은 해결할 과제임

	주요경제지표발표	매크로 / 시장 이벤트
7/6 (월)	▪ 美 6월 ISM 서비스업 PMI (C: 54.2pt, P: 54.5pt) ▪ 유 5월 생산자물가지수 (P: +4.9%yoy) ▪ 유 5월 소매판매 (C: +0.3%mom, P: -0.4%mom)	▪ 韓 달러-원 24시간 거래 시작
7/7 (화)	▪ 美 5월 무역수지 (C: -78.8B, P: -55.B) ▪ 日 5월 가계지출 (C: +2.3%yoy, P: -0.5%yoy)	▪ NATO 정상회의(~8일) ▪ [실적발표] 韓 삼성전자(잠정)
7/8 (수)	▪ 日 5월 경상수지 (C: 4.14조엔, P: 3.91조엔) ▪ 韓 5월 경상수지 (P: 28.3B)	▪ 美 FOMC 의사록 공개 ▪ 韓 지급준비일
7/9 (목)	▪ 美 6월 기존주택매매 (C: 4.24m, P: 4.17m) ▪ 中 6월 소비자물가지수 (P: +1.2%yoy) ▪ 中 6월 생산자물가지수 (P: +3.9%yoy)	▪ 韓 옵션 만기일 ▪ [실적발표] 美 펩시코
7/10 (금)	▪ 日 6월 생산자물가지수 (C: 0.5%mom, P: +0.9%mom)	▪ 韓 SK하이닉스 ADR 美 상장 예정 ▪ [실적발표] 美 델타항공

추천 종목

섹터/산업	종목/코드	편입가 (원) 편입 날짜	수익률	최근 1년간 차트	주요 실적 예상 & Valuation	투자 포인트
방산	현대로템 (064350)	- (7/6일)	신규 편입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4,376.6 / 5,954.9 / 6,940.3 영업이익 456.6 / 1,055.8 / 1,180.5 순이익 405.3 / 803.9 / 953.1 PER (배) 13.3 / 26.7 / 22.6	▪ 피어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 보유 ▪ 중동 사태 안정화 이후 유럽으로 시장 관심 이동 전망 ▪ 지상 체계 부각 가능성
자동차 부품	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(161390)	- (7/6일)	신규 편입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9,411.9 / 21,153.3 / 22,506.7 영업이익 1,762.3 / 1,849.2 / 2,132.4 순이익 1,131.1 / 1,217.8 / 1,338.2 PER (배) 4.3 / 6.9 / 6.3	▪ 2분기 실적 호조 예상 ▪ RE 중심 매출 구조로 단기 업황 변동에 자유로운 타이어 업체들의 아웃퍼폼 기대
EMS	서진시스템	- (7/6일)	신규 편입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1,213.8 / 1,062.4 / 1,804.0 영업이익 108.7 / 4.4 / 182.6 순이익 83.9 / (52.1) / 61.8 PER (배) 15.9 / - / 52.1	▪ 신 그리드 에너지 기업들 OEM화에 따른 구축물 EMS 쇼티지 수혜 ▪ ESS의 BTM 시장 침투 가속화 따른 시장 기회 확장
에너지	한국전력 (015760)	38,000 (6/22일)	+0.7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93,398.9 / 97,646.8 / 98,502.1 영업이익 8,364.7 / 14,976.7 / 9,761.7 순이익 3,622.0 / 9,110.5 / 5,836.1 PER (배) 3.7 / 2.7 / 4.3	▪ 미국 원전 밸류체인 붕괴로 팀코리아 수주 확대가 예상, 이에 장기적으로 대미 원전 투자의 주계약자로 인한 프리미엄이 부각될 전망 ▪ 안정적인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한미 원전 협력 진전에 따른 추가 주가 모멘텀도 유효
화장품	에이피알 (069960)	373,000 (6/22일)	+2.5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722.8 / 1,450.5 / 2,724.4 영업이익 122.7 / 347.6 / 686.9 순이익 107.6 / 282.0 / 537.5 PER (배) 17.6 / 53.6 / 28.0	▪ 아마존프라임데이(6/23~26) 고성과에 대한 주가 선반영 기대. 전년 행사기간 4일간 300억원의 매출 기저를 상회하는 성과 발생 시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 ▪ 2분기 실적 호조 가능성 높음. 현재까지 발표된 오프라인 파이프라인(3월 세포라, 4월 타겟, 6월 월마트 입점 확정)만 해도 영업이익 1,700억 상회할 것